

엄마들이 쓰는 고급화장품 30대부터 챙기면 '꿀 피부'

트렌드 Pick!

동인비 진 에센스

발림성·흡수성 무척 뛰어나 리프팅 케어, 피부에 젊은 탄력

어느 날, 친한 후배가 홍삼 스틱을 하나 건넸다.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건강 식품을 참 잘 챙겨먹곤 했다. '나는 기자고 너는 노트북'이란 영혼 없는 표정으로 노트북을 부실 듯 치다가 불현 듯 다급하게 가방을 뒤질 때면 열의 아홉은 좁과 같은 건강 식품이, 나머지는 각종 핑계를 붙인 주전부리가 딸려나왔다.

예전 같으면 '먹고 살려고 고생한다'는 동료애가 먼저 튀어나왔을 텐데, 30대에 접어들고나니 '나도 한 번 먹어보자'는 마음이 먼저다. 신체 기능이 전과 같지 않음을 조금씩 느끼게 되니 안 먹고, 안 찾던 건강 관련 제품에 눈이 가는 것이다. 고급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도 딱 이맘때쯤인 것 같다.

◆사라진 피부 탄력을 찾아서

피부 노화도 여러 증상이 있고, 여러 단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기자는 탄력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피부가 희고 얇은 편인데, 얼굴 피부의 탄력이 어느 순간부터 견잡을 수 없이 사라지는 느낌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인비의 '진 에센스'를 사용해봤다. 홍삼에서 엄선된 피부 탄력 성분으로 피부 속과 겉을 촘촘하게 채워주고, 피부 층층이 끌어올린 리프팅 케어로 탄력있는 젊음의 피부로 바꾸어 준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설명서대로 사용해봤다. 토너 사용 후 적당량을 털어 입가와 눈가 피부부터 마사지하듯 힘을 주어 펴발라주면 된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발림성과 흡수성이 무척 뛰어나다는 점이다. 점성이 어느 정도 있는 쫄쫄한 텍스처에도 불구하고 발랐을 때 끈적이고 번들거리거나 무겁지 않다. 펴바르는 순간 흡수돼 부드럽고 보송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 가는 편이다.

개인적으로는 제품을 바른 뒤 화장할 때에 유분기가 올라오지 않는 편이



동인비가 10월부터 '탄력의 탄성을 올리다' 캠페인을 진행한다. /KGC인삼공사



동인비 '진 에센스'. 점성이 있는 쫄쫄한 텍스처지만 발림성이 좋아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김민서 기자

라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았다.

주름개선 효과는 모르겠다. 바른 뒤 쫄쫄한 느낌이 들긴 한다. 참고로 동인비의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95%가 '얼굴 선(윤곽)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진입장벽 너무 높네

제품의 첫 인상을 떠올려보면 '울드하다'는 것. 단순하고 고급스러운 박스에 화이트와 로즈골드로 된 제품 용기까지, 엄마 화장대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디자인이란 생각이 들었다.

홍삼을 주 성분으로 한 제품인 만큼 향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펌프를 손등에 짜는 순간 홍삼 향기가 진하게 퍼져나오는데 젊은층이 선호하는 향은 아니란 생각이 우선 들었다. 다만, 시간이 지난 뒤 잔향이 의외로 괜찮다.

다소 높은 가격대와 적은 판매처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다. 물론 가격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에서 꼭 사와야 할 제품 중 하나로 자주 오르내리는 만큼 호기심이 동하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괜찮을 제품으로 추천한다. 제품은 50ml에 정가 기준 22만 원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토종 발효종으로 구운빵, 맛과 풍미 '가득'

파리바게뜨 '시그니처 브레드' 출시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토종효모와 토종 유산균을 혼합한 발효종으로 만드는 '시그니처 브레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그니처 브레드'는 SPC그룹이 특허 받은 토종효모(SPC SNU 70-1)에 토종유산균 4종을 더한 발효종을 사용해 맛과 풍미를 더욱 높인 제품이다.

'시그니처 브레드'는 발효취가 적고, 고유의 상큼하고 구수한 풍미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특히 저온 숙성으로 발효 시간이 길며, 발효 과정에서 반죽 내 소화저해물



파리바게뜨 시그니처 브레드 /SPC그룹

질이 감소한다.

이번에 출시된 '시그니처 브레드'는 총 5종으로 엄선된 원료와 30여년간 축적된 다양한 공법과 노하우를 적용해 만든다.

/박인용 기자

아산병원팀, 폐암 오가노이드 개발 맞춤형 항암제 정밀의학 시대 연다

장세진 교수·김민서 박사

오가노이드 배양기술 세계 최초 개인별 특성 그대로 재현해 적용 시험관서 다양한 항암제 시험치료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폐암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이제는 실험용 쥐 대신 폐암 환자들의 개인별 특성을 그대로 재현해 항암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맞춤형 정밀의학 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울아산병원은 10일 병리과 장세진 교수·의생명연구소 김민서 박사팀이 환자의 폐암세포를 배양해 개인별 특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배양 기술을 확립하고, 항암제 개발 과정에서 약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전임상시험 암 모델로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교수팀은 정상세포는 억제하고 폐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키워 암 조직구조를 이루게 하는 오가노이드 배양기술 개발에 세계 처음으로 성공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의 편집자로부터 '주목할 만한 연구'에 최근 선



장세진 병리과 교수



김민서 의생명연구소 박사

정됐다.

또 이를 활용한 바이오칩 약물평가 플랫폼도 함께 개발돼 환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항암제를 찾을 수 있게 됐고 폐암 신약개발 과정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폐암은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고위험 암으로 혁신적인 항암제와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폐암은 조직학적 특성과 유전체 변이 특성이 다양해 대체 플랫폼인 암 오가노이드의 개발이 절실했다.

암 오가노이드란 환자의 조직 특성을 체외에서 재현한 암 모델로, 환자의 암 조직을 소량 채취해 생체 내 기질과 비슷한 구조에서 3차원으로 배양한 암 조직 유사체다. 배양 접시 바닥에서 2차원으로 암세포를 배양하는 경우와

달리 3차원으로 배양하면 암조직의 기능과 구조까지 평가할 수 있다.

장 교수팀은 환자의 폐암 조직을 소량 채취하여 생체와 유사한 구조에서 3차원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폐암 세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여러 성장인자들을 조합해 최적화된 배양액을 만들어 정상세포는 억제하고 암세포만 자라게 해 생체와 유사한 암 조직구조를 이루게 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이 배양에 성공한 환자유래 폐암 오가노이드는 모체가 되는 각 환자의 폐암 조직 유형과 일치했고, 유전체 변이 특성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특히 배양된 환자의 폐암 조직은 살아있는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환자의 암 아바타로써 시험관 내에서 다양한 항암제 시험치료를 한 후 최적의 항암제를 선택해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환자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동물실험을 대신할 수 있어 실험동물의 희생도 줄어들며, 신약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박미혜 교수,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이대서울병원)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박미혜 교수(사진)가 최근 열린 제 22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에서 제 12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고령임신, 다태아임신, 태아 기형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밀 초음파 전문가인 박미혜 신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장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산부인과 석박사를 취득했다.

또 이화여대 의과대학 기획부장, 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장, QPS센터장, 교육연구부장 등을 역임했고 이대서울병원 개원 후 이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는 산부인과 영역의 초음파 관련 교육과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여성 건강 향상에 기여

하고 있는 학회로 제 31회 세계산부인과초음파학회를 유치해 2021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스타벅스, 수익기부매장 확대... "지역 살려야죠"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확대 수익의 일부 지역사회 환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내년부터 더욱 강화해 나간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020년 상반기에 한국에서의 두 번째 커뮤니티 스토어를 오픈하고, 향후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스타벅스만의 차별화된 매장 수익기부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스타벅스는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스토어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나가고 있다. 현재 커뮤니티 스토어 프로그램은 세계 80개국의 스타벅스 중 한국과 미국, 태국 등 3개 국가에서만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이번 한국의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오픈 및 향후 점진적 매장 운영 확대 발표는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스



10일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존 컬버 스타벅스 글로벌 총괄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송호섭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이사(왼쪽 두번째)에게 커뮤니티 스토어를 상징하는 녹색 앞치마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타벅스 코리아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에 깜짝 방문한 존 컬버 스타벅스 글로벌 총괄 사장에 의해 이뤄졌다.

'스타벅스 코리아 리더십 컨퍼런스'는 3~4년에 한 번씩 전국 모든 매장의 점장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파트너 모임 회의로, 존 컬버 글로벌 사장은 한국의 스타벅

스 점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회의 자리에 예고 없이 참석해 깜짝 격려사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존 컬버 사장은 내년도에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을 오픈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수익기부형 매장을 한국 내에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공개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